

# 온라인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실태 및 효과 분석\*

## A Study on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using on-line education and it's effect

여주대학 가정과  
조교수 김성희

Dept. of Home Economics, Yeojoo Institute of Technology  
Assistant Prof: Sunghee, Kim

###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amount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for on-line education and the factors which affect on-line education expenditures and its decreasing effect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basic materials to found policy to decrease private education market and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The sample of this study was 484 parents who had an experience using on-line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being in mainly constituted by classes of pre-school over and less than high school student.

The results was as follows.

First, education expenditures for on-line education are 64,900won and the English and the Mathematics as main reasons using on-line education were that it is available for 24 hours and cheaper than off-line education. The parents got information for on-line education by internet, mass media and their next-door neighbors.

Second, the significant variables which affect on-line education expenditures and its decreasing effect of education expenditures were the children's school level and financial related factors.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신진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D00186)

## I. 서론

우리 나라와 같이 학벌위주의 사회에서는 자녀의 사회적 지위상승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자녀교육이 가계의 중요한 과업이 된다. 자녀에 대한 공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필요하다면 기꺼이 사교육을 시키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과 사교육, 소위 과외는 항상 사회경제적·정치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초등학생들의 과외문제 해소를 위해 1968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를 도입하였으며, 중학생들의 과외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74년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였고, 고등학생들의 과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980년에 7.30 교육개혁이라고 일컫는 “교육정상화 및 과외과외 해소방안”을 수립하면서 과외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외해소를 위한 제도와 정책들은 도입 당시에는 어느 정도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기처방에 대한 약효가 떨어졌고 곧바로 과외의 고질병이 재발하게 되었다. 이는 교육정책들이 과외발생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여 근원적인 처방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강대중, 2001).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면, 2000년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공교육비가 33조5천억원인데 비해 사교육비는 3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교육에서 공교육이 차지하는 몫보다 사교육이 차지하는 몫이 월등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 2천8백3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가구경제활동조사(199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별가정이 중, 고등학교 자녀에게 6년간 지출하는 평균 교육비는 가구 당 2천5백만원이었고, 이중 과외비가 1천6백95만5천원을 차지하여 사교육비의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공교육비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교재대, 부교재대, 학용품비, 과외수업비, 학교지정용품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수업준비물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학원비, 학습지구독비, 온라인 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사교육비

중 학교교육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각 가계가 필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서 비용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크지 않으나, 재능·특기교육을 시키기 위한 비용, 학교성적 향상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각종 학원수강비 및 과외교습비 등은 그 지출액수도 클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느끼는 경제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박미희, 1997).

그러므로 사회문제와 경제적 재정압박으로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저하시키는 혐의의 사교육비, 특히 과외과외의 영향요인과 경감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김선희, 1997.; 전인식, 1997; 문숙재 외 1996; 김순미 외, 1998 등).

교육개혁위원회(1997), 교육부(1997),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연구에 의하면 사교육비 경감의 한 방안으로 에듀넷(EDUNET), 인터넷, PC통신 등을 통한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과외교습기관을 일반정보 제공자로 참여시켜 쌍방향 학습체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며,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DB 및 문제은행 DB를 구축하고 제공함으로써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000년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 이후 과외 열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교육을 법으로 막기보다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인프라의 기초가 마련되고 있다. 이미 온라인상에서 유치원, 초,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과외 시장이 형성되어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시장규모 자체도 급격히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손상희·정영숙, 2001). 최근 들어 기존의 학습지 업체와 사교육을 담당하던 학원들이 온라인 교육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오프라인 사교육에 비해 4분의 1가량인 저렴한 가격과 시간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는 온라인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00년 500억 정도에서 2002년에는

5조원으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일 10여 개의 사이트가 생겨나고, 대성학원, 종로학원, 정일학원, 중앙교육 등 오프라인 입시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들이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하이텔, 유니텔 등 PC통신업체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줄잡아 500여개 업체들이 온라인 사교육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취학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와 함께 교육환경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의 이용률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에 비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체계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계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며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 까지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교육비 관련 연구들은 인적자본 투자의 한 행동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분석한 연구(김성희, 1996), 인적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의 영향요인(문숙재 외 2인, 1996; 정영숙, 1996), 사교육비와 교육문화의식(정영숙, 1997), 자녀양육비(허경옥, 1996), 사교육비 지출실태(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박미희, 1999)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소득과 자녀의 교육기간(Schultz, 1974), 가정유형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차이(Jang, 1995), 교육비 지출비용 및 소득탄력성 결정 요인(Huston, 1995, 1996; Abdel-Ghany와 Foster, 1982)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모두 교육비 지출 실태와 영향 요인만을 분석한 것으로 실질적인 경감 방안으로 제시된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의 하나인 온라인 교육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연구가 있다고 하여도 온라인 교육의 이용여부, 효과에 대한 단순 실태분석에 불과하며, 온라인 교육비 지출과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형편이다. 즉, 온라인 교육이 사교육비 경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사교육비 항목의 추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하나인 온라인 교육(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과외프로그램)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온라인 교육비 지출과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교육정책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가져다주는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 향상과 직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확대 팽창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시장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교육비의 개념

사교육과 사교육비의 개념은 조사기관과 학자에 따라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단순화시키면 공교육비에 대칭되는 개념이므로 공교육의 성격을 명료화함으로써 사교육비의 보다 명료한 정의가 가능하다. 공교육비는 학교교육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이 공공회계절차를 거쳐서 지출하게 되는 교육비로서, 여기에는 국가와 공공단체 등이 부담하는 교육비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공납금 등이 포함된다. 공교육비도 다시 이를 협의로 보면, 협의의 개념에 의한 공교육(국·공립학교)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 광의로 보면 광의의 공교육(국·공·사립의 모든 학교)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에서는 공교육을 공립학교를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광의의 공교육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광의의 공교육비는 모든 국·공·사립학교의 교육비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하

는 사교육비도 광의의 공교육비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다. 즉, 사교육비는 국·공·사립의 모든 학교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비 중에서 교육(행정)기관의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가 지출하는 각종 교육비와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과외수업, 학원 등)을 위한 교육비를 의미하게 된다. 여기에는 교재대, 보조교재대, 학용품비, 과외수업비, 학교지정용품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하숙비 등이 포함된다.

Becker(1993)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교육비를 사교육비와 사회적 교육비로 구분하는데, 사교육비는 직접사교육비와 간접사교육비로 구분한다. 직접사교육비는 위에서 언급한 사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간접사교육비는 교육기회경비로 유실소득 혹은 포기된 소득을 말한다. 사회적 교육비는 모든 교육비 지출, 교육에 관련된 시설, 그리고 학교가 면세 대상이 아닐 경우 학교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Kiras등(1975)은 교육비를 직접교육비(보수, 학교가 제공하는 비품과 학용품비, 이자), 간접교육비(하숙비, 피복비, 교통비, 개인적인 용품비), 포기된 기회경비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는 교육비 분류체계는 1977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비 분석연구에서 분류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1977년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거의 5년마다 사교육비를 조사하고 있는데 시계열적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대체로 종전의 사교육비 조사항목인 교재대, 부교재대, 학용품비, 과외수업비, 학교지정용품비, 단체활동비, 교통비의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항목에 수업준비물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기타(육성회 찬조금, 어머니 회비, 기부금 및 사례비 등)를 포함시키고, 과외수업비를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학원비의 세 가지로 나눔으로써 14개 항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조사에서는 사교육비를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가 직접 지불하는 학업 관련 경비를 사교육비로 규정하고, 만3세에서 고등학생(재수생 포함)까지의 자녀의 재능개발이나 학

업성적 향상을 위해 지불하는 경비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학교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지정 의류비, 단체활동비, 하숙비 등 학교교육에 필요 불가결한 제반 비용과 취업목적의 기술학원, 고시학원, 기타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사교육비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학원수강, 과외교습, 학습지구독, 방과후 보충학습으로 사교육형태를 구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교육비로 포함시켰다. 또한 교육법상 공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비도 교육수용자 입장에서 볼 때 보육원, 기타 유치원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각종 학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유치원 교육비를 사교육비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러므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는 사교육비 중 협의의 사교육비인 과외비에 한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과외비는 사교육비의 일부로 입시준비과외, 개인의 소질·특기·재능개발 과외를 의미하는 것이다(김영철, 1997; 강상문, 1998).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협의의 사교육비인 과외 과외비를 의미한다. 과외비는 각급학교의 정규 학교수업 이외의 수업을 받는 일체의 교습행위를 위해 지불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각급학교 입학시험이나 학교성적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과외수업과 예체능 및 재능발달을 위한 과외수업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외수업은 장소에 따라 교내 과외수업, 학교 외 과외공부(학원 및 그룹 개인지도), 교육방송과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과외수업 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설학원과외, 그룹과외, 개인과외인 것이다(윤정일, 1997).

최근 들어 과외 과외비 문제와 관련하여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학자, 경제학자들은 대학입시제도 개선에서부터 시작하여 교육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과외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대안으로 방과후 학교교육프로그램의 확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사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사교육은 교육방송학습과 인터넷이나 PC통신과 같은 컴퓨터통신학습인 온라인 교육울 의미하는 것으로(김익태, 1997; 이득연, 1998;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협의의 사교육비 형태에 온라인 교육비를 비롯한 방과후

교육비가 추가로 포함되고 있다.

## 2. 사교육비의 지출현황 및 문제

2000학년도 과외비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교육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9학년도에 비해 연간 30만원 이하의 저액 과외비율은 10.7%나 감소했지만 151만원 이상을 쓴 고액 과외는 오히려 4.4% 더 늘어났다. 또 서울 강남과 신도시 과외비는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늘어나 전국 평균의 2~3배에 달했다. 사교육비 전체 규모도 99년 6조7,720억원에 비해 3,556억원이 늘어난 7조1,276억원으로 추정됐다. 과외 학생 1인당 평균 과외비는 연간 133만5,000원으로 99년보다 6.2%인 7만8,000원이 증가했으나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은 99년(192만3,000원)보다 49%인 94만3,000원이 늘어난 286만6,000원에 달했다. 분당과 일산도 72만4,000원 늘어난 232만7,000원으로 증가율이 45%에 달했다. 읍면 지역의 과외비는 99년보다 2,000원 줄어든 81만원이었다. 서울도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지역의 과외비는 139만1,000원이었다(교육부, 2001).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도시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산출하여 가계지출액과 대비하여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과외비는 가계비의 11.0%~13.3%를 차지하고 있다. 한 가정에 초·중·고등학교가 2명 있다고 가정한다면 가계비의 20~30%가 사교육비로 지출된다고 할 수 있다(1994,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총량이 약 12조 1백 2억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생 약 5조 7천2백92억원, 중학생 약 4조 6천5백19억원, 고등학생 약 3조 3천8백49억원의 순을 보이고 있다. 연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유치원생의 경우 약 1백55만원, 초등학교생 3백30만원, 중학생 2백6만원, 일반고생 2백33만원, 실고생 84만원, 전문대생 93만원, 대학생 3백95만원, 대학원생 4백 72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를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특기재능과외비 25.2%, 급식비 12.4%, 교통비 8.9%, 입시학원비

7.3%, 통신학습지과외비 7.2%, 부교재구입비 5.1%, 개인교과목과외비 5.1%, 하숙비 5.1%, 잡비 4%, 단체활동비 4%, 교재구입비 3%, 기타 2.9%, 방과후교육활동비 2.5%, 학용품비 2.2%, 학교지정의튜비 1.8%, 수업준비물비 1.5%, 취업준비학원비 1.1%, 독서실비 0.7% 순이었다(한국교육개발원, 1999).

박미희(1998)의 연구에 의하면 만3세에서 대입 재수생까지의 자녀를 둔 전국 5,004가구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평균 178,042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2.31%를 차지하였다. 응답 가구의 65.4%는 가계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지출을 위하여 빚을 내거나 주부부업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었다(김인숙, 1996; 주삼환, 1997).

자녀의 사교육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며, 가계의 재정압박을 가져다주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사교육비와 가계복지와는 부적인 관계가 있어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가계복지 수준을 하락시키고 있다(손상희·정영숙, 2001). 그러므로 과열과외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오히려 역기능의 효과만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교육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요인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학력 추구경향, 높은 교육열, 고학력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혜택이 부여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학교교육의 부실, 매년 변화하는 대학입학 전형제도 및 어렵게 출제되는 수학능력시험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김선희, 1997).

## 3.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서의 온라인 교육

사회적으로 과열 과외와 가계의 과외비 부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교육개혁위원회(1997)는 과외 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① 학교교육의 정상화, ② 지방대학의 집중육성 및 대입전형 방식의 정착, ③ 학원운영제도의 합리화, ④ 방과후 활동의 확대제공, ⑤ 정보통신 기술의 최대한 활용, ⑥ 교육소비자 운동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인적

자원부에서는 현행 사교육 과열 상황을 인정하고 사교육비의 관리 차원에서 과열된 사교육시장을 진정시키고 사교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의 하나로 온라인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사교육의 흡수차원에서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의 하나인 온라인 교육은 PC와 인터넷의 고속 보급, ICT 관련 기술의 빠른 진보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제시되었다. 정보화의 진보로 교육 분야에서는 원격교육, 가상교육, 사이버교육, CBT(Computer Based Training), WBI(Web-based Instruction), 디지털 학습,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전자학습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용어가 쓰여지고 있다(전인식, 2001).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은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인터넷, 특히 웹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박인우, 2001). 초기 온라인 교육의 목표는 면대면 교육을 가능한 온전하게 온라인 상에 구현하는 것이었으나, 최근 초고속망이 일반에 보급되면서 온라인 교육의 장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②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더욱 생생하고 실제적인 교육을 할 수 있으며, ③ 교육자료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④ 다양한 최신의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⑤ 학습자의 수준, 취향에 따른 수준별 개별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라인 교육은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누구든지(anyone)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시장은 기업의 사내교육에서부터 유아교육, 초등학생용 학습사이트, 인터넷 과외 사이트 등 다양한 주제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01년 1월말 현재 220여개의 교육사이트가 운영중이며, 이 가운데 중·고등학생용 학습사이트와 인터넷 과외 사이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고등학생 대상의 온라인 교육시장은 초반에 온라인 교육 전문업체가 주도하였으나 점점 오프라인에서 명성을 쌓은 학원과 학습지 회사들이 브랜드 파워와 수 십년간 쌓아 온 자체 콘텐츠를 기반으로

온라인 교육에 진출하면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무료로 운영되거나 비교적 적은 수강료를 받고 운영되고 있어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앞으로의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교육서비스가 더욱 늘어나 과외를 비롯한 사교육 시장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온라인 교육의 대표적 사이트로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무료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에듀넷은 ① 교육정보의 확보 ② 과외기능의 제공 ③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사용자 요구 충족을 위한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질 높고 값싸며 신뢰로운 과외를 제공하여 과열 과외수요를 흡수하고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점진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김익태(1998)는 에듀넷을 통해 과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과후 학교교육과 위성방송 과외와 마찬가지로 학원과외의 수요를 흡수하거나 대체하여 이와 유사한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1998년도 에듀넷 가입 예상자를 기준으로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측정한 결과 에듀넷 과외가 제공되면 에듀넷 가입자수는 2,910,000명까지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연간 16,327.2억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시장이 질적,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워낙 급속히 발전하여 면대면으로 마주하고 있지 않은 학습자를 수업에 끌어들이기 위한 기술의 부족으로 학습동기 저하의 문제가 있으며, 교육 콘텐츠의 부족, 실시간 음성강의나 전자칠판의 열악한 품질, 학습결과의 확인 및 평가의 문제, 교육 효율성의 문제, 학부모들의 온라인 학습에 대한 불신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이 미비한 곳에서는 이용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에듀넷에 등록된 146개 교육용 웹사이트 중 평가를 희망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교육내용, 교수설계, 교육환경의 3개 부문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년 2회에 걸쳐 우수교육

용 사이트를 선정하여 수상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지방에 사는 수험생도 서울의 유명 학원 강사의 과외를 받을 수 있게 돼 계층별,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초고속 인터넷망 보유 여부 등 정보화 기반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입시 위주 교육이 여전한 가운데서는 또 다른 사교육비만 하나 더 늘릴 것이란 우려도 한다(강대중, 2001).

그러나 일부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아직은 과외나 학원 강의의 대안으로 자리잡기엔 미흡하다고 말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양질의 콘텐츠가 부족하며, 실시간 강의를 이루어지지 않아 엄밀한 의미에서 1대1 쌍방향 과외로 보기 어렵다. 또한 동영상 기술의 부족으로 음성과 화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교육은 실제 강의보다 집중도가 떨어지므로 '사이버 과외는 실제 과외를 대체하기보다 보완 수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중앙일보, 2000. 6. 1).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교육사이트는 2001년 1월말 현재 220여개, 3월말 현재 500여개로서,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동아일보, 2001. 9. 7. 47면; 전인식, 2001). 2001년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약 35조원인데, 이중 온라인 교육시장규모는 500억원이며, 2002년에는 5조원으로 100배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동아일보, 2001. 3. 19. 25면). 2001년 11월 중 사이버 교육 사이트를 찾은 네티즌은 총 1021만명으로 전달에 비해 약 40만명 감소했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방문자의 연령별 분포는 10대 청소년층이 전체 방문자의 30%를 차지해 가장 두터운 방문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40대 이상도 전체의 16.5%나 차지하고 있다(이코노21, 2002. 1. 15).

사이버 교육 사이트는 전문교육 사이트와 종합교육 사이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문교육 사이트는 영어나 정보기술(IT)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이트가 주로 성업중이다. 종합교육 사이트는 초·중·고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이트별로 전문화된 교육 서비스를 부가하면서 교육 포털 서비스를 지향하는 곳도 많다.

#### 4. 온라인 교육비 관련연구의 고찰

개별 가계에서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교육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자녀수의 감소로 인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증가, 전문교육의 확대, 그리고 입시관련 정책의 변화 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조선일보, 1997년 3월13일자). 증가하는 교육비 부담은 가계의 재정만족도를 감소시키고 생활의 질을 하락시키게 되므로, 자녀의 교육비를 줄이거나 이에 대한 교육제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사교육비 경감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실태분석에 불과하며, 온라인 교육비 지출과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볼 때, 온라인 교육은 사교육비의 한 유형이므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자녀관련요인, 그리고 재정관련 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Huston, 1996; Abdel-Ghany와 Foster, 1982; 김순미 외, 1998; 정영숙, 1996 등).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에는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주부의 취업유무, 지역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Huston(199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구주의 연령은 교육비 지출과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연령이 증가할 때마다 연간 \$7.20 정도의 교육비가 증가하였고, 가구주가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인 경우는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연간 \$552를 더 지출하였다. 또한 가구주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연간 \$233.90 정도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전문직과 관리직에 종사하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혜택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Abdel-Ghany와 Foster(1982)는 소득과 주부의 교육수준이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

에서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이 민감하게 증가한다고 하였다. 주부의 취업유무 또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쳐, 취업주부 가계에 비해 비취업주부 가계가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영숙, 1996). 거주지역 또한 교육비 지출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보다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운금, 1996; 문숙재 외 2인, 1996;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 5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으로 갈수록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은 감소하였으며, 서울의 경우 강남이 강북 지역에 비해 2배정도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관련요인을 보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하나 자녀 1인당 지출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일반적이다(Becker, 1993; Lino, 1994; Huston, 1996; 문숙재 등, 1996; 양세정·이운금, 1997). 자녀가 속한 학교급 또는 학년은 사교육비 지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녀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은배·배성준, 1994; 문숙재 등 1996; 김순미·김성희, 1998; 한국교육개발원, 1997; 김인숙, 1996). 자녀의 성적이 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결과는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Mincer(1963)는 자녀의 성적과 교육비 지출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한 반면 김인숙(1996)과 김성희(1996)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재정관련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 유동자산, 생활수준 등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관련 요인에 포함된다. 소득과 유동자산, 미래에 대한 경제적 전망 등은 사교육비 지출과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가계소득과 유동자산이 많을수록, 미래에 대한 경제적 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영숙, 1996; Huston, 1996; 문숙재 외 2인, 1996).

이 외에 정보통신매체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수준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득연, 1998; 김익태, 1997)를 기초하여 정보화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인터넷이용빈도와 컴퓨터 사용능력을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이득연(1998)의 연구에 의하면 PC통신학습을 이용하는 사람의 컴퓨터 통신 이용빈도는 주 6회 이상이 61.1%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 인터넷 이용도가 높은 사람이 온라인 교육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컴퓨터 통신으로 인한 과외비 절감 효과에 대해 '절감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9%, '보통이다' 24.5%, '효과없다' 36.7%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약간 높았다.

### Ⅲ.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 1. 연구모델

본 연구는 현재 사교육시장에서 사교육비 지출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실태 분석과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Y1 = f(\text{인구통계학적 요인, 자녀관련 요인, 재정관련 요인, 정보화관련 요인})$

$Y2 = f(\text{인구통계학적 요인, 자녀관련 요인, 재정관련 요인, 정보화관련 요인})$

$Y3 = f(\text{인구통계학적 요인, 자녀관련 요인, 재정관련 요인, 정보화관련 요인})$

여기에서 Y1은 온라인 교육비를 의미하며, Y2는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의 심리적 효과, 그리고 Y3는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의 금전적 효과를 의미한다. 사교육비 경감의 금전적 효과는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증가액에 '-'값을 주었으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는 '0'값을, 그리고 '감소되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감소액에는 '+'값을 주어 금전적 효과를 파악하였다. 온라인 교육비 지출 및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독립변수들은 선행연구를 기



초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녀관련 특성, 재정관련 특성, 정보화관련 특성으로 범주화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는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직업, 부인취업 유무, 거주지역이 포함되었다. 조사대상자인 부모의 연령은 자녀연령 및 자녀 학교급과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연령 및 자녀 학교급으로 부모의 연령을 대신하였다. 자녀관련 특성에는 자녀 수, 자녀의 학업성적, 첫 자녀 학교급이 포함되었고, 재정관련 특성에는 가계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 경제전망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보화관련 특성에는 인터넷 이용빈도와 컴퓨터 사용능력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이러한 연구모델에 의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온라인 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둘째, 온라인 교육비 지출과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의 영향력을 밝히는데 있다.

2. 연구방법

1)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선행연구(Lino, 1994, 2001;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 방법
<b>종속변수</b> 온라인 교육비 온라인 교육의 심리적 효과 온라인 교육의 금전적 효과	자녀의 온라인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월)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의 경감 정도 1=많이 증가 3=변화 없음 5=많이 감소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 감소액 증가된 액수는 '-'값 부여
<b>독립변수</b> <u>인구통계학적 특성</u> 남편교육수준 부인교육수준 남편직업 부인취업유무 거주지역	남편의 교육년수(년) 부인의 교육년수(년) 1=고급공무원, 고위임직원, 전문가 2=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3=서비스근로자, 판매원, 기능원, 자영업·공업자 1=취업 0=비취업 1=서울 2=광역시 3=중소도시/군부
<u>자녀관련 특성</u> 자녀 학업성적 자녀수 첫자녀 학교급	1=하위10%내 3=중간 5=상위 10%내 자녀수(명) 1=취학전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u>재정관련 특성</u> 가계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 경제전망	급여소득+상여금+자영소득+부업소득(만원/월) 저축액+주식보유액+채권보유액+보험불입금+계불입금(만원) 주택의 현재시가+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시가(만원) 1년 후의 경제사정에 대한 주관적 평가 1=매우 나빠질 것임 3=비슷함 5=매우 좋아질 것임
<u>정보화관련 특성</u> 인터넷 이용빈도 컴퓨터 사용능력	1=매일 0=주3-4회 이하 1=하 3=중간 5=상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김순미·김성희, 1998; 리서치 앤 리서치, 1998; 정영숙, 1996 등)에 기초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문항, 자녀관련 특성 5문항, 재정관련 특성 5문항, 정보화관련 특성 2문항, 온라인 교육비 관련 9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온라인 교육은 사교육의 한 형태이다. 사교육의 형태는 취학단계에 따라 다양한데 대체로 학원교습, 개인 및 그룹과의, 학습지구독 및 방과후 보충수업 등으로 분류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00;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최근 들어 사교육비 경감의 한 방안으로 과외와 학습지의 형태를 변형한 온라인 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가 직접 지불하는 학업관련 경비로서, 학생·학부형의 자유 의사에 따라 지출이 이루어지나 어느 정도는 공교육비와 중복 투자의 성격을 갖는 사교육비 중 Internet이나 PC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위한 사교육비만을 포함하였다.

## 2)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30세 이상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은 자녀학력, 지역규모, 온라인 교육여부를 기준으로 사후층화방식에 의하여 유의할당추출법을 이용하여 표집되었다. 조사는 온라인 전문 조사기관인 인터넷매트릭사에 의뢰하여 2002년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온라인설문시스템을 이용한 e-mail survey로 진행되었다.

현재 인터넷 조사가 표본의 대표성 문제, Self-selection Bias, 동일인의 복수응답, 정직하지 못한 응답, 낮은 응답률, Output-quality 등의 문제로 저평가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를 panel을 이용한 e-mail survey 실시, 일률적인 응답을 한 부실응답의 제거, 시간통제를 통한 부실 응답의 제거 방법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였다. 표본의 대표성 문제는 본 연구가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오프라인 조사 시 표본 선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인터넷

을 이용하는 사람이 온라인 교육에 쉽게 노출될 것이고, 또 이들은 시대를 선도하는 성향이 강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인터넷 조사방법을 선택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조선, 패션플러스, 버디버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적극적인 설문조사를 유도하였다. e-mail은 30,000통이 발송되었으며, 이 중 10,582통의 e-mail이 오픈 되어 오픈율은 35.3%이다. 이 중 설문지를 조회한 건수는 6,298건이며, 설문에 응답한 건수는 2,535건으로 응답율 40.3%를 보였다. 응답한 설문 중 자녀가 없거나 부실 응답된 설문 1,046건을 제외한 1,489건을 최종 자료로 선정하였다.

전체 1,489표본 중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는 표본만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사용된 최종 표본은 484가계이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PC SAS Package program(Ver. 6.12)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녀관련 특성, 재정관련 특성, 정보화관련 특성, 그리고 온라인 교육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산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이 온라인 교육비 지출과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OLS분석을 실시하였다. OLS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단변량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값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녀관련 특성, 재정관련 특성 및 정보화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 남편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이 69.9%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교육년수는 15.06년으로, 남자의 국민 평균 교육수준이 95년 11.2년인 것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표 2〉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범 주 형 변 수		빈 도(N=484)	백 분 율
남편교육수준	고등학교	77	16.1
	초대졸/대학중퇴	67	14.0
	대학교 이상	335	69.9
부인교육수준	고등학교	148	31.1
	초대졸/대학중퇴	77	16.2
	대학교 이상	251	52.7
남편직업유형	고위임직원, 전문가	78	16.1
	준전문가, 사무직	259	53.5
	서비스직 등	147	30.4
부인취업유무	유	173	35.7
	무	311	64.3
거주지역	서울	138	28.6
	광역시	143	29.5
	중소도시/군부	203	41.9
첫자녀의 학교급 자녀의	취학전	54	11.2
	초등학교	222	45.9
	중학교	107	22.0
	고등학교	101	20.9
학업성적	상위 10%내	227	47.5
	상중(11~30%)	154	32.2
	중간(31~70%)	88	18.4
	중하(71~90%)	7	1.5
	하위 10%내	2	0.4
인터넷 사용 빈도	매 일	419	86.6
	주 3-4회 이하	65	13.4
컴퓨터 사용능력	상	82	16.9
	중상	187	38.7
	중간	169	34.9
	중하	41	8.5
	하	5	1.0
연 속 형 변 수		Mean	S. D.
남편교육수준(년)		15.06	1.57
부인교육수준(년)		14.42	1.81
자녀수(명)		1.80	0.55
자녀의 학업성적(1-5점)		4.25	0.83
근로소득(만원/월)		307.86	118.9
재산소득(만원/월)		62.21	106.3
금융자산(만원)		2508.9	5211.7
실물자산(만원)		17392.7	35033.1
경제전망(1-5점)		3.22	0.93
컴퓨터 사용능력(1-5점)		2.38	0.90

※ 결측값으로 인하여 응답자수는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 52.7%, 고등학교 31.1%였으며, 평균 교육년수는 14.42년으로 95년 9.4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유형은 준전문가, 사무직이 53.5%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주부(35.7%)보

다 전업주부(64.3%)의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역을 보면 중소도시 및 군부 41.9%, 광역시 29.5%, 서울 28.6%이었다. 자녀수는 평균 1.8명이었으며, 자녀의 학업성적은 4.25로 자녀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자녀의 학교급을 보면 초등학교 45.9%, 중학교 22.0%, 고등학교 20.9%로 나타나 부모의 연령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 것을 알 수 있다. 가계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07.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 265.1만원(통계청, 2001) 보다 다소 높았으며, 가계의 금융자산은 2508.9만원, 실물자산은 17392.7만원이었고, 1년 후에 대한 가계의 경제전망은 3.22로 올해보다 약간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인터넷 사용빈도는 '매일'이 86.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컴퓨터 사용능력은 '중상' 38.7%, '중간' 34.9%, '상' 16.9%로 비교적 사용능력이 중간 이상이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소득, 직업수준이 높은 것은 표본이 인터넷 사용자로 한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 이용자의 특성을 보면 일반인 중 대졸이상 학력이 81.0%, 고졸 학력은 54.6%, 전문·관리직은 83.9%, 사무직 83.3%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KRNIC, 2001), 비교적 전체 국민에 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육수준 및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2. 온라인 교육 이용 실태

온라인 교육 이용 실태를 살펴 본 결과 <표 3>과 같다. 온라인 교육 이용여부를 보면 '없다' 67.5%, '과거에 교육받았다' 19.3%, '현재 교육받고 있다' 13.2%로 아직 온라인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이 많았다. 과거에 교육받은 경험까지 포함하면 온라인 교육을 접해본 집단이 32.5%로 나타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교육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신과외를 시키는 비율이 1%이었던 리서치 앤 리서치(1998)의 연구 결과에 비하면 일반화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최근의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온라인 교육 이용자가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1년 11월 중 사이버 교육

사이트를 찾은 네티즌이 총 1021만명으로 사이버 교육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10대 청소년층이 전체 방문자의 30%를 차지한다는 결과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이코노21, 2002. 1. 15). 학습지를 포함한 통신교육비율이 36.9%인 김양분(2000)의 결과와, PC통신 학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34.7%였던 이득연(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영어 등 외국어' 35.6%, '수학' 23.1%, '전과목' 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교육 사이트 중 영어나 정보기술(IT)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이트가 주로 성업중이며, 종합교육 사이트는 초·중·고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이트별로 전문화된 교육 서비스를 부가하면서 교육 포털 서비스를 지향하는 곳도 많다"는 신문기사의 내용과 일치한다(이코노21, 2002. 1. 15). 그러나 컴퓨터 통신학습을 이용한 과목은 '영어' 48.4%, '국어' 45.4%, '수학' 44.9%로 나타난 이득연(199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서' 39.4%, '교육비가 저렴하여' 16.2%, '자녀가 원해서' 11.4%로 나타나, 온라인 교육이 사교육비 경감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교육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보다는 인터넷과 온라인 교육의 장점인 시간과 공간의 구애가 없다는 이유로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정보원으로는 '인터넷 광고 메일' 31.5%, '신문·잡지·방송' 17.7%, '주위사람' 17.2%, 그리고 '인터넷 배너광고' 11.6%로 나타나 온라인 교육을 접하는 매체로 인터넷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중매체나 주위사람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경험하고 있었다.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성적 향상정도를 보면 '약간 향상되었다' 60.2%, '변화가 없다' 32.4%로 교육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PC통신 학습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득연(1998)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1998년에 비해 현재는 온라인 교육체계가 보완된 결과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월 평균 6.49만원이었으며, 집단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온라인 교육 이용 실태

(N=484)

온라인 교육 이용 실태		빈도	백분율
이용경험*	과거에 교육받았다	287	19.3
	현재 교육받고 있다	197	13.2
	없다	1005	67.5
이용과목**	국어	55	8.7
	수학	145	23.1
	영어 등 외국어	243	38.6
	과학	33	5.2
	전과목	103	16.4
	한자	25	4.1
	논술 미술	16 9	2.5 1.4
온라인교육 선택동기	교육비가 저렴하여	78	16.2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서	190	39.4
	학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40	8.3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17	3.5
	자녀가 원해서 기타	55 53	11.4 11.0
이용하는 온라인교육 정보원	주위 사람	77	17.2
	신문, 잡지, 방송	79	17.7
	선전 광고지	18	4.0
	자녀	44	9.8
	인터넷 광고 메일	141	31.5
	인터넷 배너 광고	52	11.6
	학원 추천 온라인 교육박람회, 설명회	9 27	2.0 6.0
성적 향상	많이 향상되었다	24	5.1
	약간 향상되었다	286	60.2
	변화가 없다	154	32.4
	오히려 약간 떨어졌다	11	2.3
	많이 떨어졌다	0	0.0
연속형 변수		Mean	S. D.
온라인 교육비(만원/월)		6.49	13.2

\* 전체 표본에서 온라인 교육 이용 경험에 대한 결과이므로 표본수가 1489임

\*\* 중복응답으로 인하여 빈도에 차이 있음

※ 결측값으로 인하여 응답자수는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리적 효과와 금전적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다.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 '변화 없다' 59.7%, '약간 도움이 되었다' 23.7%, '많이 도움이 되었다' 10.2%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보다 변화가 없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온라인 교육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PC통신학습에 의한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이득연(1998)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극히 소수이기는 하나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하였다

〈표 4〉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

(N = 484)

항 목		빈 도			백 분 율	
심리적 효과	많이 도움이 되었다	49			10.2	
	약간 도움이 되었다	114			23.7	
	변화 없다	287			59.7	
	오히려 약간 증가하였다	30			6.2	
	많이 증가하였다	1			0.2	
연 속 형 변 수		25%	50%	75%	Mean	S. D.
심리적 효과(1-5점)		3	3	4	3.37	0.76
금전적 효과(만원/월)		0	0	3	3.06	8.95

\* 결측값으로 인하여 응답자수는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는 비율도 6.4%인 것으로 보아 사교육비 경감의 대안이긴 하지만 온라인 교육이 또 하나의 사교육 형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 결과로 추정된다.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금전적 효과는 전체 집단 중 50%는 사교육비 경감의 금전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25%는 월 평균 3만원의 금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의 금전적 효과는 월 평균 3.06만원으로 온라인 교육을 경험한 표본의 평균 사교육비가 55.15만원인 것과 비교하여 사교육비 경감의 정도가 매우 미비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교육이 사교육비 경감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매우 미약하며, 경감의 효과가 많은 집단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 3. 온라인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온라인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OLS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온라인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인 취업유무, 자녀 학업성적, 첫 자녀 학교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주부에 비해 취업주부 가계의 온라인 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

교육비 지출과 어머니의 직업유무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백승훈(1998), 문숙재(1996)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것이다. 주부의 취업유무가 온라인 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인터넷을 접할 확률이 높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 광고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사교육의 중심지라고 하는 서울 강남 대치동에 사는 전업주부들의 주된 하루 일과는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에 비해 자녀 교육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취업주부들은 언제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여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녁시간을 자녀 교육에 투자하기 때문에 전업주부에 비해 취업주부의 온라인 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녀의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온라인 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가난한 집 애가 공부도 잘한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돈이 있어야 공부도 잘한다'가 되었다(국민일보, 2001. 3. 16). 가계의 경제적 능력과 명문대학진학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학업성적과 사교육비 지출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부모들은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높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

2) 김양분(2000)의 연구에 의하면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비율은 15.9%에 불과하다.

〈표 5〉 온라인 교육비 지출에 대한 OLS 결과

변수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인구통계학적 특성		
부인교육수준	0.17	0.36
남편직업(준전문가, 사무직)		
고급공무원, 전문가	2.52	1.77
서비스근로자, 자영상공인	0.22	1.49
부인취업유무(비취업)	2.96**	1.32
거주지역(중소도시/군부)		
서울	-0.37	1.49
광역시	-0.02	1.45
자녀관련 특성		
자녀 학업성적	-1.64*	0.74
자녀수	0.29	1.11
첫자녀 학교급(고등학교)		
취학전	-6.18**	2.25
초등학교	-4.72**	1.62
중학교	-3.82*	1.90
재정관련 특성		
가계소득	-0.00	0.01
금융자산	-0.00	0.00
실물자산	-0.00	0.00
경제전망	0.23	0.69
정보화관련 특성		
인터넷 이용빈도(주 3-4회 이하)	-1.20	1.86
컴퓨터 사용능력	-0.43	0.72
상수	12.78	6.91
F - vlaue	1.706*	
R <sup>2</sup>	0.1133	

\* < .05      \*\* < .01

녀의 교육을 위해 어떤 형태의 사교육이라도 시키고 있다.<sup>3)</sup> 자녀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부모는 부업을 하거나 빚을 내서라도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시킨다(윤성인, 1996; 한겨레신문, 2001. 2. 6). 그러나 학업성적이 낮은 자녀의 부모는 교육의 효과를 떠나서 무엇인가 자녀를 위해 시키는 사교육이

있다는 심리적 위안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자녀의 학업성적이 낮은 가계의 온라인 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첫 자녀의 학교급이 고등학교에 비해 취학전, 초등학교, 중학교인 경우 온라인 교육비의 지출이 유

라인 교육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온라인 교육을 하는 가계에서 평균 1.8명의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월 평균 55.15(S.D : 49.40)원으로, 200만원 이상 소득층이 월평균 29.5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다는 리서치 앤 리서치(1998)의 연구결과에 비해 비교적 높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현행 과외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고액과외를 비롯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타당성 있는 결과라 사료된다.

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교육 시장이 입시위주로 온라인 문제지나 과외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자녀의 학교급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다는 선행연구(강상문, 1997; 김인숙, 1996; 나병현, 1997; 박미희, 1997; 리서치 앤 리서치, 1998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온라인 교육도 사교육의 한 형태이므로 온라인 교육비 지출도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OLS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다.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심리적 효과와 금전적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사교육비가 경감되었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효과에는 자녀의 학업성적, 첫 자녀 학교

<표 6>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효과에 대한 OLS결과

변 수	심리적 효과		금전적 효과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인구통계학적 특성				
부인교육수준	-0.18	0.03	0.14	0.33
남편직업(준전문가, 사무직)				
고급공무원, 전문가	-0.12	0.14	-2.04	1.60
서비스근로자, 자영업자	-0.06	0.12	-0.84	1.33
부인취업유무(비취업)	0.09	0.10	1.57	1.17
자녀관련 특성				
자녀 학업성적	0.09+	0.06	0.62	0.65
자녀수	0.02	0.09	-0.76	1.01
첫자녀 학교급(고등학교)				
취학전	-0.51**	0.18	-5.84**	2.02
초등학교	-0.31*	0.13	-4.04**	1.46
중학교	-0.30*	0.15	-2.82+	1.65
재무관련 특성				
가계소득	-0.00	0.00	0.00	0.00
금융자산	0.00	0.00	0.00+	0.00
실물자산	0.00*	0.00	0.00+	0.00
경제전망	-0.09+	0.05	-0.92	0.62
정보화관련 특성				
인터넷 이용빈도(주 3-4회 이하)	0.20	0.15	2.45	1.73
컴퓨터 사용능력	-0.02	0.06	-0.42	0.63
상 수	3.57***	0.54	1.15	6.09
F - vlaue	1.835*		2.079**	
R <sup>2</sup>	.1138		.1400	

+ < .10      \* < .05      \*\* < .01



급, 실물자산, 경제전망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자녀의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심리적 효과는 증가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연구에 의하면 초, 중,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도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 중학교의 상위그룹 학생들은 하위그룹 학생에 비해 2배 이상, 고등학생의 경우는 3배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부모들은 자녀의 명문대학 입학에 위해 더 많은 사교육을 시키고자 애쓰므로 이들에게는 온라인 교육이 기존에 받고 있던 사교육에 추가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학업성적이 낮은 부모들에게는 온라인 교육이 기존의 사교육을 대신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교육 경감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된다.

첫 자녀의 학교급이 고등학교에 비해 취학전, 초등학교, 중학교인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경감의 심리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학교급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가계부담이 증가하므로(윤성인, 1996)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여 수감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교에서의 수업과 보충수업 등으로 시간의 부족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고등학생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는 기회가 더 많을 것이며, 이를 통해 사교육 경감의 효과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고생 모두 PC통신학습의 이용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한 이득연(1998)의 연구와 상반된 것이다.

실물자산이 많을수록 1년 후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전망이 나쁠수록 온라인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의 심리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물자산은 매각을 통해서만 자녀 교육비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므로 실물자산이 많다고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투자에 바로 연결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실물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의 심리적 효과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제전망이 낮을수록 온

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1년 후 가계의 경제적 사정이 나빠진다면 자녀의 사교육비는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온라인 교육으로 기존의 사교육을 대체시킴으로서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의 금전적 효과에는 첫 자녀의 학교급, 금융자산, 실물자산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자녀의 학교급이 고등학교인 경우에 비해 취학전, 초등학교, 중학교인 경우 금전적 효과가 낮았으며,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많을수록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의 금전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교급이 고등학교인 경우가 취학전, 초등학교, 중학교인 경우에 비해 사교육비 경감의 금전적 효과가 큰 것은 현재 온라인 교육 시장의 특성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시교육 위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고등학생이 논술, 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입시교육 중심의 온라인 교육에 더 많이 노출되어 온라인 교육 선택의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므로 사교육비 지출을 경감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자녀관련 요인과 재정관련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학교급이 높을수록 온라인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며, 이로 인한 심리적, 금전적 경감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녀의 학교급이 높을수록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과 관련된 것으로, 사교육비 압박의 해결방안으로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온라인 교육시장이 입시교육을 중심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온라인 교육에 노출되는 기회가 더 많을 것이며 이로 인해 온라인 교육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온라인 교육의 노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선택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로 인해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가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고등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시간의 부족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된다. 입시학원의 수업시간이 새벽 1시에 강의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제약을 가장 적게 받는 온라인 교육을 선택할 가능성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비 지출도 오프라인에서의 사교육비 지출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학교급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가계의 재정관련 요인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라 할 수 있다. 즉,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윤성인, 1996; 유형선, 1998; 김순미·김성희, 1998 등)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계층간의 교육투자 격차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온라인 교육에서도 재정관련 특성이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교육비 경감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의 실태분석과 온라인 교육비 지출과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는 사교육 시장과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의 미비로 기존의 사교육비 지출 실태에 대한 연구 중심으로 연구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온라인 교육비 지출과 경감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독립변수들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녀관련 특성, 재정관련 특성 및 정보화관련 특성으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온라인 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집단은 전체 표본의 32.5%로, 이중 현재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는 집단은 13.2%이었으며, 이들이 지출하는 온라인 교육비는 월 평균 6.49만원이었다.

형태별 사교육비 지출을 보면 학원수강이 5조4천1백35억원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개인과의 1조8천2백6억원, 그룹과의 1조9백93억원, 학습지 9천3백12억원, 통신으로 하는 교육비 2천4억원으로(조선일보, 1997. 6.20) 아직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는 집단은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이용하는 과목 중 비율이 높은 것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와 수학이었으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교육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였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광고메일이나 배너 광고 등 인터넷을 통해 얻는 경우가 43.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외에 대중매체나 주위사람을 통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였다. 온라인 교육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사교육비 경감액은 월평균 3.06만원으로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 6.4%는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변화없다고 한 집단이 59.7%나 되어 온라인 교육이 사교육비 경감의 대안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선택 가능한 사교육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온라인 교육으로 사교육비 지출에 변화가 없다는 결과는 아직 온라인 교육이 시작단계이므로 유료화보다는 무료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기보다는 한번 경험해 본다는 이용자 의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33.9%인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학습효과를 고려한 교수설계로 효과적인 교육이 진행된다면 온라인 교육이 사교육 경감의 대안으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온라인 교육 업체들은 이윤추구만을 우선시 하기보다는 국가의 심각한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두주자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Edunet과 같은 공적 교육사이트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교육사이트들을 지속

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발표하여 온라인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1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Edunet에 등록된 146개 온라인 교육업체 중 평가를 허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 교육사이트를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선정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평가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평가 대상도 확대하여 우수한 교육사이트를 발굴하고 이를 지상에 발표하여 많은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 교육의 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이용의 불편함 등으로 온라인 교육이 사교육비 경감의 대안으로 자리잡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될 것이며, 이는 기존의 여러 교육 정책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심리적, 금전적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의 학교급과 재정관련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학교급은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의 학교급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자녀의 학교급이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집단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학 입시제도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고교 평준화 교육과 매년 조석으로 바뀌는 입시정책이 사교육 시장을 과열시켰다고 본다. 입시제도가 바뀌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갈팡질팡하다가 보다 적응이 빠른 사교육으로 향하게 되고 이는 사교육시장의 과열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재정압박만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학입시정책의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가계의 재정능력은 자녀의 사교육 실시 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계층간 교육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교육의 공교육화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가계가 부담하게 되는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가

계의 경제적 복지 향상을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과열되는 사교육 시장을 진정시키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사교육비 경감의 하나로 제시된 온라인 교육은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이 기존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해지고, 또 하나의 사교육 형태로 자리잡아 역기능을 초래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며 다각도로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식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순기능보다 역기능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의식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연구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탐색적 성격이 강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e-mail Survey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 결과와 함께 본 연구만의 특수한 결과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일반화와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1) 강대중(2001), 교육생태계의 괴물, 사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2) 강상문(1998). 사교육비 경감 대책 비교·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3) 김선희(1997), 사교육비 유발요인과 사교육비 경감방안, 소비자문제연구 22호, 29-53.
- 4) \_\_\_\_\_(2000), 어린이 영어 학원 및 방문 학습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보호원
- 5) 김순미·김성희(1998). 자녀의 학교 급별 교육비 지출 : 두 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 129-142.

- 6) 김영철(2001), 우리나라 교육시장의 종합 진단: 사교육과 공교육의 역할 분담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7) 김인숙·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37-149.
- 8) 문숙재·김성희(1995).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의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301-313.
- 9)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4.
- 10) 박미희(1998),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11) 박인우(2001), 사이버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교육개발원.
- 12) 손상희·정영숙(2001), 디지털 시대, 중년기 가족의 교육비: 문제진단과 해결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 30차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pp. 49-70.
- 13) 윤정일(1997), 사교육비의 개념, 증가원인 및 대책, 소비자문제연구 22호, 1-28.
- 14) 전인식(2001), 온라인 교육시장. 한국교육개발원.
- 15) 정영숙(1996). 가계의 교육비 지출과 선별가설: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2). 207-222.
- 16) 정영숙(1996).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1). 1-14.
- 17) 주삼환(1997), 과열과외로 인한 가정·사회적 문제와 개선 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18) 한국교육개발원(2001), 한국의 교육비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19)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 20) 허운나(1993). 정보공학과 교육. 서울:배영사.
- 21) Becker, F.(1975), *Human capital*(2nd ed.), New York: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22) F. Webster(1995). *Theories of Information Society*, Routledge, 조동기 역, [정보사회이론]1997. 사회비평사
- 23) Harasim, L.(1990). *Online Education: Perspectives on a New Environment* NY: Praeger.
- 24) Hiltz, S.R., & Johnson, K.(1990). User Satisfaction with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System. *Management Science*, Vol.36, No.6, 739-764.
- 25) Huston, S.J.(1995). The Household Education Expenditures Ratio: Explor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The Journal of FERM division of AAFCS*, 51-56.
- 26) Huston, S.J.(1996). An Analysis of Household Expenditures on Educational Goods and services. *ACCI*, 42. 181-188.
- 27) Kaili Y. & Chun-li T.(1999). What Affects the Education Expenditures in Taiwan. *Proceeding 3rd Asian Consumer & Family Economics Association*. 157-165.
- 28) Kiras, F.G, selma, J.M & Bradly B.B.(1975), *Educational Outcome-Measurement in Developing Counties*, Washiongton C.C. : Georgetown University.
- 29) Lewis, C. & Hedegaard, T.(1993). Online education: Issues and some answers. *The Technological Horizons in Education Journal*, April. 68-71.
- 30) Lino, Mark(1994), Expenditures on Child by families, *FER*, 7(3), 1-7.
- 31) Maddux, C. D., & Willis, J. W.(1992) Integrated Learning Systems and Their Alternatives. *Educational Technology*, 32(9), 51-57.
- 32) Mi-Hee, P. & Jung-Sung. Y.(1999). Analysis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of Korean Households. *Proceeding 3rd Asian Consumer & Family Economics Association*. 149-156.
- 33) Seonglim, L.(1998). *Parental Strategies for Financing Children's Postsecondary Education*. Unpublished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34) Teresa Mauldin, Yoko Mimira, & Mark Lino (2001), parental Expenditures on Children's Education, *J.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2(3).